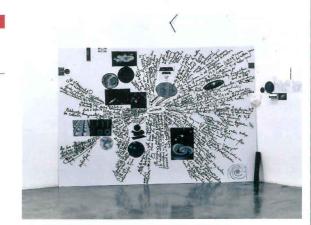
토탈미술관 8월 28일 - 10월 25일

기본적인 영어만 알아도 쉽게 이해하고, 또 웃을 수 있는 댄의 드로잉. 개념 예술에 심취한 듯 보기에도 복잡하고, 또 한눈에 이해하기 어려운 리아의 설치 작업. <지식미술관>에 들어섰을 때 느끼는 첫인상이자, 피할 수 없는 선입견이다. 두꺼운 마커로 전시장 벽에 시원시원하게 그려낸 댄의 대표 작업은 물론 세계 각국의 호텔에서 묵으며, 벽에 걸린 회화 작품을 기록한 'Art in Hotel(호텔에 있는 예술 작품)(2008-2015)' 모두 벽에 연필로 미세하게 세긴 작품명을 보지 못해도 따로 설명이 필요 없어 명쾌하다. 여행을 하며 흥미로운 장면을 똑딱이 카메라로 기록하는 댄 퍼잡스키. 그의 꼼꼼하고 독특한 시선은 그래피티를 지우는 동시에, 흰 페인트로 그래피티의 내용과 궤적을 그대로 살리는 사진 작업에서도 드러난다. 반면에 리아 퍼잡스키는 93 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여행을 하며 읽어온 해외 서적을 기반으로 그녀만의 주관적인 미술사와 '지식'을 연대기 형식으로 제안한다. 주관성은 때로 옥스퍼드에 있는 미술관에서 수집한 가시철사 모양의 팔찌나, <How to Survive & Prosper as an Artist:

Selling Yourself Without Selling Your Soul

지식미술관, 의문과 논평



(아티스트로서 생존하고 번영하는 방법: 영혼을 팔지 않고 작업을 파는 방법)>을 현대미술사를 대변하는 중요한 서적으로 꼽은,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에서도 보여진다. 물론 작가에게 직접 설명을 듣지 않는 이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리아의 작업은 조금 더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궁금하면 일단 구글로 검색을 해보는 노력은 필수다. 리아 또한 루마니아가 공산주의에서 벗어난 후, 이웃 나라인 헝가리의 뉴스를 처음 접하며 내용을 해독하기 위해 사전을 펼쳤다니 과한 요구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알레산드로 멘디니, 디자인으로 쓴 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10월 9일 - 2016년 2월 28일

요즘 디자인 세계에서는 거추장스러운 장식을 최대한 매끈하게 덜어내야 곧 '감각 있는 디자인'이라고 부른다.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핸드폰으로 종종 꼽히는 애플의 아이폰의 미적 철학도 그렇고, 젊은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는 '세련미'를 강조한 작업을 내놓는 게 추세다. 하지만 이탈리아 디자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알레산드로 멘디니는 세련미보다는 익살스러운 디자인과, 눈이 아플 정도로 화려한 색채 감각으로 유명하다. 리빙 브랜드 알레시와 협업해 내놓은 와인 오프너는 만세를 하듯 양팔이 벌어지는 사람의 형태로 디자인했고, 그의 대표작인 ' 프루스트 의자'는 화사한 색과 점으로 동화적인 두드러기를 연상시키는 패턴으로 뒤덮여 있다. 단순함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디자이너라면 멘디니의 작업을 보고 과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사실 '프루스트 의자'는 일반 가정보다는 미술관에서나 볼 법한 예술 조각 같지만, 멘디니가 정확히 의도한 바다. 10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유행한 순수미술 기법인 점묘법을 가구에 입히며, 순수미술과 디자인의 경계를 허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의 디자인 철학 중 하나는 "유행이 지나도 당신의 위치를 유지하라" 이다. 총 600여 점으로 구성된 전시는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DDP에서 열리는 멘디니의 대규모 개인전이다. 인생의 반을 건축 전문 잡지의 편집장으로 일하다, 50대의 늦은 나이로 디자인에 첫 도전장을 내밀었음을 감안하지 않아도 그가 쌓아온 드로잉과 디자인 포트폴리오는 화려하다. 작품 선정은 물론 전시장 디자인까지 작가가 기획했다는 점에서도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직선보다는 곡선을 추구하는 멘디니의 작업은 DDP의 비대칭적인 공간에 어울릴 수밖에 없다.





Critics' picks

정일주(<퍼블릭아트> 편집장)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의 뼈와 골격을 보여주는 작업으로 유명하다. 이번 전시장에는 가득 '닭'을 채워 가상공간을 완성한다. ▶ 페리지 갤러리 11월 7일까지

믿음의 번식 이수경 작가는 최면을 통해 목격한

전생의 장면들을 캔버스 위에 담거나, 때론 스님에게 받은 두 개의 돌에 금박을 입히는 작업을 통해 신화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담아낸다. ▶ 아뜰리에 에르메스 12월 20일까지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

헤르만 헤세의 소설에서 제목을 따왔다. 소설 속 클링조어는 죽음에 작업을 한 화가로 묘사된다. 전시의 또한 사진, 회화와 설치 작업을 통해 개개인의 예민한 감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하이트컬렉션 12월 12 일까지

Temple of The Artist 서상익 작가가 선보이는 전 세계 각각의 대표작 앞에 선 윌렘 드 쿠닝과 특유의 성격까지 짐작할 수 있다. ▶ 갤러리기체 10월 24일까지

경기도미술관

비디오 아트, 설치와 사진을 모은 책을 읽고 잠을 자며 시간을 때우는 11월 15일까지

Museums and galleries

국제갤러리 우고 론디노네 개인전 국제갤러리에서 선보이는 우고 론디노네의 신작은 뉴욕 록펠러 센터 앞에 설치됐던 'Human Nature(인간의 본성)'의 연장선으로 만든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The Inquisitive', 'Nosy' 등 순서대로 '호기심쟁이'와 '참견쟁이'로 해석할 수 있지만 모두 얼굴도, 감정도 없는 거대 고인돌처럼 생겼다. ▶ 10월 11일까지. **하종현 개인전** 한국전쟁 이후 미군 군량미를 담던 포대자루를 회화의 재료로 사용한 하종현. "직접적인 표현을 하기보다는 당시 시대 상황과 아픔을 되씹어서 소화시켜 표현해야 한다" 고 말한 하종현의 최근 작품은 마포 천 위에 유채로 새로운 선과 색을 구사한다. 개인적으로 패널을 철조망으로 얽은 '작품 73' 같은 역동적인 작업이 그립지만, '이후접합'은 지금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 재료로 억지를 부리지 않는다. 지금 시대에 충실한 21세기 작품이다. ▶ 10 월 18일까지. kukje.org, 종로구 삼청로 54, 02-735-8449, 월-토 10:00 -18:00, 일·공휴일 10:00-17:00, 무료 입장

중심으로 생활미술을 조명하는 그룹 전시. 지난 3년간 남서울미술관을 빛낸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손의 축제 손으로 만드는 공예 작업을

작가들의 신작도 엿볼 수 있다. 그중에는 허명욱 사진가가 수집하고, 그것을 옻칠로 칠해 재해석한 원형 테이블도 보이고, 실제로 작가가 모은 빈티지 소품은 그의 사진 작업의 소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도의 디자이너자 대표인 이윤신이 깨진 도자기를 쏟아지는 별동별처럼 매단 설치 작업도 있다. 은박접시로 제작한 갑옷을 입은 여성의 초상화는 생활 미술이나 공예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세계 지역 박물관의 민속품이나 유물을 지역 슈퍼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으로 재현한 유쥬쥬의 '더 슈퍼 뮤지엄 프로젝트'다. ▶ 11월 8일까지. sema. go.kr, 노원구 동일로 1238, 02-2124-8800, 월-금 10:00-20:00, 토·일· 공휴일 10:00-19:00, 무료 입장 하이트컬렉션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 한 편의 소설을

읽듯 느껴보라는 취지로 기획된 그룹전은 헤세 중편 소설에서 따온 제목부터 감성적이다.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

갤러리 기체 10월 24일까지 평소에도 도트 무늬 원피스를 입는 쿠사마.

서상익 개인전 Temple of The Artist

그녀의 옷차림은 작업이 곧 삶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고상한 오케스트라의 선율을 캔버스로 옮겨 그리던 칸딘스키 또한 말끔하게 정돈된 머리에 걸맞은 흰 셔츠와 넥타이 차림을 고수했다. 이렇게 유명 작가들의 초상화를 들여다보면, 단순히 옷차림 속에서도 작가의 성격은 물론 이들이 하는 작업의 성격까지 알 수 있다. 서상익은 이런 상호 관계를 회화 연작인 '화가의 성전'을 통해 유쾌하게 부각시킨다. 작가는 예술계의 대가로 꼽히는 작가들이 스스로의 대표 작업을 배경으로 등지고 서 있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누가 앤디 워홀이고 또 폴락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지만, 각각의 작가가 캔버스를 찢고 악수를 권하는 극사실주의 작업은 아니다. 그리고 라우션버그의 침울한 표정과 의 주인공은 아름다운 시, 여자와 술을

사랑했던 40대 표현주의 화가였으며,

완성하는 데 몰두했다. 비록 허구의

인물이지만, 이렇게 클링조어가 겪은

마지막 여름 이야기에 빠져들면 전시장

그는 죽음에 가까워지며 오로지 자화상을



3414 ② 화-금 10:00-19:00, 토 11:00-18:00 ₩ 무료 입장 연구하게 됐다. 작가는 한국 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치킨을 보며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는 닭의 모습이

꿈을 접고 현실에 함몰된 직장인 같았다"

고 설명한다. 하지만 전시장을 찾은

및 gallerykiche.com 😭 마포구

성미산로 161-10 🕿 070-4237-

공간과 건축 요소를 부각시키는 이은우나 로와정의 설치 작업 보다는 회화와 사진 작업에 눈이 갈 수밖에 없다. 모유가 맺힌 유두와 사춘기 소녀의 손을 주인공으로 확대한 정희승의 사진, 그리고 거친 붓질로 벚꽃놀이의 분위기를 그려낸 박형지의 회화 작업 모두 작가들의 감정선이 더욱 격렬하게 드러나니까. ▶ 12월 12일까지. hitecollection.com, 강남구 영동대로 714, 02-3219-0271, 월-토 11:00 -18:00, 무료 입장 페리지 갤러리 이형구 개인전 Gallus '갈루스(gallus)' 는 라틴어로 수탉을 의미한다. 전시는

제목 그대로 토종 수탉의 뼈를 16배 확대한 조형물로 구성되어 있다. 웬만한 사람보다 큰 닭발의 뼈도 있고, 닭 한 마리의 뼈대로 방 하나를 삼킨 수탉도 있다. 도날드 덕과 미키마우스의 골격을 재현해온 이형구 작가의 작업이다. 동물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몰두했던 그가 닭으로 화두를 옮기게 된 계기는 바로 '치맥'. 배달시켜 먹고 남은 닭뼈를 재조립해보니 닭 한 마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본격적으로 수탉을

아이들의 눈에는 아마 공룡으로 인식될 것이다. ▶ 11월 7일까지. perigee. co.kr, 서초구 반포대로 18 지하 1층, 070-4676-7096, 월-토 10:30-18:30, 무료 입장 아뜰리에 에르메스 이수경 개인전 믿음의 번식 전문 도예가들이 버린 백자와 청자의 파편을 모으는 이수경. 그녀는 이런 조각들을 24K 금박으로 이어, 하나의 올록볼록한

도자기를 완성하는 '번역된 도자기' 작업으로 유명하다. 이번 개인전에서도 '금박'이 작업의 소재로 등장하지만, 이번에 이수경이 내놓은 오브제는 금을 입은 돌이다. 보여지는 형태만 비교하면 도자기 작업에 비해 단조롭지만, 고귀하게 빛나는 돌은 작가가 강진의 한 스님을 찾아가서 받은 두 개의 돌 중 하나를 전시한 것이다. 한마디로 돌에게 '그곳에 있었다'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시적인 표현만은 아니라는 사실. 다른 돌의 행방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 12 월 20일까지. maisondosanpark. hermes.com, 강남구 도산대로45길 7 3층, 02-544-7722, 월·화·목-일 11:00-19:00, 무료 입장

리듬풍경 프랑스 철학자인 앙리 르페브르의 유작인 <리듬분석: 공간, 시간, 그리고 도시 일상생활>에서 모티브를 따온 전시. 그는 아침에 일어나 회사에 출근하고 또 틈틈이 끼니를 챙겨 먹는, 반복적인 '일상의 리듬' 을 관찰하는 게 곧 현대사회를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믿었다. <리듬풍경> 에 전시되는 작업들 또한 현대인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핵심 주제로 잡았다. 감정을 일종의 서비스로 제공하는 '감정노동자'들의 인터뷰와 태국의 실크회사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촬영한 영상작업 모두 일로 인해 소모된 일반인들을 조명한다. ▶ 11월 15일까지. gmoma.ggcf.kr,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68, 031-481-7007, 화-일 10:00-18:00, 4000원, 청소년 2000원

소마미술관

옛날이야기 같다.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의 선선한 바람을 만끽하며, 올림픽공원을 산책할 수 있는 무료 전시를 소개한다. 지명 공모를 통해 선별된 전시는 소마미술관을 감싼 공원 곳곳에 설치된 조각 작업으로 구성돼 있는데, 당선작은 제멋대로 엉킨 배드민턴 라켓을 연상시키는 국형걸 팀의 '다이내믹 릴랙세이션'이다. 아이들이 엉켜 올라타고, 또 연인들이 잠시 앉아 쉬어갈 수 있는 참여 작업. 일종의 공공 놀이터라 볼 수도 있다. ▶ 10월 18일까지. somamuseum.org,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공원, 02-425-1077, 무료 입장 PKM 갤러리 토비 지글러 개인전 스치듯 보면 스테인리스 가스레인지에 낀 기름때처럼

소마 야외 프로젝트 S 반팔 티셔츠 한

장으로 여름 하루를 보내던 게 벌써

보인다. 하지만 오색으로 물든 알루미늄

판을 자세히 보면 플랑드르 대가들의 회화 작업도 있고 풍경화를 그릴 때 유독 하늘을 집중적으로 묘사하는 존 컨스터블의 구름도 보인다. 토비 지글러는 이런 회화 작업을 할 때도, 조각을 할 때도 역사적 예술 작품의 이미지를 컴퓨터로 재해석해, 작업의 재료로 사용한다. 하지만 루브르 박물관에서 피카소가 훔친 이베리안 두상 조각을 기반으로 만든 조각은 알고 봐도 걸작의 얼굴을 찾을 수 없다. 알아볼 수 없게 얼굴의 모양을, 하나의 큐비즘 조각처럼 깎아 내렸기 때문. ▶ 11월 8일까지. pkmgallery. com, 종로구 삼청로 7길 32, 02-734-9467, 화-일 10:00-18:00, 무료 입장 October 2015 TIMEOUTSEOUL.KR 59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through Oct 25 Closely resembling what you might find in newspaper comics, Dan's wall drawings are hard-hitting, comprehensible and good for a laugh. But Lia's work isn't

Knowledge Museum,

Doubts & Comments

so straightforward. It's hard to even draw any conceptual connections between her arrangements of seemingly

random objects, let alone read her handwriting. Such first impressions are inevitable upon entering "Knowledge Museum, Doubts & Comments," and are quite true to defining the nature of the artists' works—but don't be

rash to pick favorites based on surface judgments. At the exhibition, you'll not only find Dan's signature marker drawings executed in thick, black lines, but also "Art in Hotel"—a series of photographs on various hotel room paintings he found during his frequent travels from 2008-2015, all shot with a compact point-and-shoot. Despite the faintly scrawled text on the wall, the titles of works like "Art in Hotel" and "Erased Graffiti" point directly to the concept of the work. The photo series "Erased Graffiti" does in fact, document erased graffiti found all over the world. But the question of what is erased is debatable, as seen in the efforts to cover-up certain graffiti, the content of the drawings are merely re-represented and traced out like superb stencil jobs done in white paint. Lia's work, on the other hand, is conceptually attached to personal poetry and narration, as shown in her subjective timeline on art **Alessandro Mendini, the Poetry of Design**



news of her neighboring country, Hungary. So it's not really a stretch for the artist to ask the viewers to adapt to her studious nature. After all, it is dubbed the "Knowledge Museum," and knowledge doesn't come overnight. patterns that verge on the realm of being considered fine art. In collaboration with production brand Alessi, Mendini designed a wine opener with a smiling humanlike "head" for its revolving screw and "arms" that merrily open in the shape of a Y. His infamous "Proust Chair" is covered in a field of paint speckles that looks something like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 meets a really bad case of the chicken pox. So, if you are a designer with a taste for minimalism, his elaborate design may be a bit of a scare, as the "Proust Chair" sits more comfortably

patterns of a visual arts movement, he wanted to break the With over 600 works on display, it's the first solo exhibit of such a huge size to take place in Eastern Asia. Remembering that he's now 84, the size of his prolific as the editor-in-chief of an architecture magazine. It was not until he was in his '50s did he decide to become a designer and an architect. So, it makes complete sense works—Zaha Haidid's asymmetrical DDP.

Critics' picks

Jung II-ioo (editor-in-chief of Public Art



photographs and painted until hic. ► HITE Collection; through Dec 12. **Temple of The Artist** of infamous art gods like, Willem de Kooning, posing in front of their look at, Bacon's grief-stricken face, as it reflects his artistic methodology

and personality too. ► Gallery Kiche;

3D animation characters. Similarly,

skeletal chickens. ➤ Perigee Gallery;

RhythmScape Eight local and international artists, including Nam Hwa-yeon and Tetsuya

Gallus

contemporary life. Johanna Billing's video shows scenes of drivers taking a reading or nap break on a congested jeong highlights that most workers their smiles and emotions as forms of service. ➤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through Nov 15.

the rhythms of everyday life. As the French philosopher believed that observing the lifestyle of the common citizen can undo the corruptions of society, Cho Hye-jeong

and Kim Sook-hyun interviewed service industry workers to reveal that they are actually selling their emotions as service. Yang Jung-uk similarly represents the distress of

those who work standing up all day in

the form of monstrous machines that

bend and turn in repetitive motions.

Through Nov 15. 268, Dongsan-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gmoma.ggcf.kr, 031-481-7007).

Tue-Sun 10am-6pm. 4,000 won,

find yourself reminiscing about the autumn skyline and breezes, make sure to head over to Olympic Park to fully experience the damp

SOMA Museum of Art

SOMA Outdoor Project S

Before winter arrives and you

youth 2,000 won.

grass on your feet and the outdoor sculptures. Offered for free, the outdoor project was curated from a submission-based contest, and the winning team was Kook Hyounggul. The sculpture "Dynamic Relaxation" looks like a twisted badminton racket from afar, but you can climb it like a playground adventure if your inner child decides to break loose. Through Oct 18. Olympic Park, 424, Olympicro, Songpa-gu (somamuseum.org, 02-425-1077). Free. **PKM Gallery Toby Ziegler** The paintings sort of look like rainbow-colored grease floating on top of aluminum panels. But take some time to make out the abstract splotches, as you'll see

John Constable's clouds in the mix. Ziegler takes images from old and classic masterpieces, renders and distorts them on the computer, then transfers the resulting images onto the paintings, you won't be able to spot the Iberian head that Picasso of a cubist sculpture. Through Nov Tue-Sun 10am-6pm. Free.

in an art museum than in a regular household. But this is exactly what the artist intended, as the dotted pattern speaks to Pointillism. By dressing an everyday object in the



seemingly inflexible boundaries between art and design. portfolio is no big surprise, but Mendini spent half his life that the dedicated designer has not only taken the effort to select the appropriate pieces for the show, but to also take part in designing the exhibition halls himself. And he has chosen the best museum in Seoul to showcase his curvy October 2015 TIMEOUT.COM/SEOUL 57 **Temple of The Artist** Gallery Kiche, through Oct 24 Kusama not only covers furniture and a giant pumpkin in her famous dotted patterns, but wears them as day dresses too. Kandinsky also dressed to match his orchestral

with a white shirt and tie combo. Looking at photographs of famous artists, you can see that their artistic personas seeped into their lifestyle,

Atelier Hermès Saint Breeders

Mon-Sat 11am-6pm. Free. **Perigee Gallery** Gallus In Latin, a "gallus" is a rooster, at this exhibition. Simply put, the Korean chickens magnified 16 Famous for modeling skeletal sculptures of animal-based and Donald Duck, Lee Hyung-gu moved on from mice and ducks after assembling the chicken bones left over from a hearty whole chicken that he ordered

understand. 161-10, Seongmisan-ro, Mapo-gu (gallerykiche.com, 070-4237-3414). Tue-Fri 10am-7pm, Sat 11am-6pm. Free. (perigee.co.kr, 070-4676-7096). Mon-Sat 10:30am-6:30pm. Free.

Rauschenberg alongside the poised

and smiling Lichtenstein and you'll

out the image of a pouting

Yee Soo-kyung is known for collecting shattered pieces of celadon deemed trash by master potters. She assembles the shards in a random fashion and adheres them together with 24K gold leaf to create a bulbous sculpture. At her solo exhibit at Atelier Hermès, the artist also makes liberal use of gold leaf, but uses it to cover the surface of a round, ordinary stone. Lookswise, the golden stone appears dull compared to the celadon sculpture, but the stone too, has a backstory. Yee presents one of the two stones she received from a Buddhist monk from Gangjingun, and the clues to the almost mythical tale can be found in the title of the work. And "You Were There" makes you wonder where the other stone is. Through Dec 20.

7, Dosan-daero 45-gil, Gangnamgu,3F (maisondosanpark.hermes. com, 02-544-7722). Mon, Tue, Thu-

works by Flemish masters and aluminum panels—and he uses a similar digital process to build his sculptures as well. But unlike famously stole from the Louvre Museum, as he smoothed away the details of the face in the form 8. 32, Samcheong-ro, Jongno-gu (pkmgallery.com, 02-734-9467).

Museums and galleries **Kukje Gallery**

Ugo Rondinone

Ha Chong-hyun

Rondinone's giant stone sculptures

Rockefeller Plaza, but their brothers

Kukje Gallery with new personas-

that resemble Easter Island's

and sisters will be on display at

"The Inquisitive" and "Nosy" to name a few. Through Oct 11.

Ha Chong-hyun pushes pigments

through hemp canvases so that

the paint oozes out the front. In

barbed wire and burlap sacks

his past works, Ha used materials found from his surroundings like

used to hold and transport rice for

moais are no longer at the

U.S. soldiers, but his recent work is a bit more colorful and tactile. Through Oct 18. 54, Samcheong-ro, Jongno-gu (kukje.org, 02-735-8449).

Mon-Sat 10am-6pm, Sun, Holidays 10am-5pm. Free. **SeMA Buk Seoul Museum of Art** 2015 Seoul Focus: Festival of Hands

10am-8pm, Sat, Sun, Holidays 10am-7pm. Free. **HITE Collection** Klingsor's Last Summer Klingsor of Hermann Hesse's

At this exhibition on craft and design, you'll find a collection of vintage scales, lamps and furniture. Yi Yoon-shin, the CEO and designer of pottery dishware brand Yido, hangs the fragments of broken bowls and dishes like a DIY chandelier with fishing wire, and photographer Huh Myung-wook presents a handsome collection of vintage dinnerware and round tables that he often use as props in his own work. Through Nov 8. 1238, Dongil-ro, Nowon-gu (sema. go.kr, 02-2124-8800). Mon-Fri

Klingsor's Last Summer is a fictional painter in his forties, and is also the muse for the group exhibit. A lover of beautiful verses, women and alcohol, Klingsor painted like a mad man as he grew closer to his death, with ambitions to finish his last self-portrait and masterpiece. Klingsor's paintings will not be hung at this exhibit, but the curator advises to "feel out" the works installed as if reading Hesse's emotionally-charged novella. By doing so, story-driven

famous works, so it's quite easy

to spot Warhol and Basquiat if you are familiar with their faces. But the picturesque portraits aren't the scene-stealers of the exhibit—check photographs like a mother's breast with milk dewed on her nipple and roughly marked paintings of cherry blossoms will probably win you over, because faux crown molding sculptures and conceptual wall drawings don't tend to bring tears to the eyes. Through Dec 12. 714, Yeongdong-daero, Gangnam-gu (hitecollection.com, 02-3219-0271).

music inspired paintings—he looked

like a smartly-dressed conductor

as shown in Seo Sang-ik's "Temple

Seo renders realistic portraits of

artists posing in front of their most

of the Artist." In this painting series,

in gold-trimmed glasses paired

and that is exactly what you'll find sculptures are skeletons of male times larger than their actual size. animation characters like Mickey combo of chimaek (fried chicken and beer). Upon realizing that the

was missing a wing and more, Lee

man who has succumbed to reality

saw the average working Korean

to give up his dreams, as being

akin to chimaek, which, without a

doubt, is Korea's favorite late night

dinner and snack. Through Nov 7.

18, Banpo-daero, Seocho-gu, B1

Sun 11am-7pm. Free.

Taking the ideologies of Henri Lefebvre's Rhythmanalysis: Space, Time and Everyday Life, the exhibition also comments on

RhythmScape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October 2015 TIMEOUT.COM/SEOUL 59